

# ICN 학술대회 특별강연

## 간호사, 정책테이블에 참여하라

###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핵심인력 '간호사'

엘리자베스 아이로 (Elizabeth Iro)  
WHO 간호정책수석



세계보건기구(WHO) 간호정책수석(Chief Nursing Officer)으로 2017년 10월 12일 임명됐다. 간호사이며, 북아일랜드 보건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민건강로드맵을 만들고 국민건강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헬스 시스템 개혁을 이끌었다. 6월 28일 국제간호협회(ICN)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간호사 여러분, 각자의 나라에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정책테이블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책테이블에 간호사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아이로 WHO 간호정책수석은 'Beyond Healthcare to Health'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과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이며, 간호사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건강보장(UHC)은 모든 국민이 그들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즉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수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목표 중 '3. 건강과 웰빙'의 세부실천목표에 해당된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잇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이다.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의 목표로 구성됐다.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일차보건의료에서의 간호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양질의 건강서비스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위해 일차보건의료에 관한 더 나은 포인트였던 알마 아타선언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은 여전히 유효하며, 간호사가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세계간호현황보고서(SoWN)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가 성공적으로 작성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자료제출 과정에 모든 나라가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각국 간호협회에서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 보고서에는 회원국들의 간호인력에 대한 보고와 함께 간호사 수, 교육, 규정(법), 근무환경, 리더십, 젠더 이슈 등을 다루게 된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간호사들은 글로벌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일차보건의료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과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특히 간호사들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세계간호현황보고서 작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편 'Beyond Healthcare to Health'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교육, 양성평등, 빈곤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들에 대해 간호사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정신 알리기

### 세계 간호사의 가치와 품격 높이는 길

김항식 전 국무총리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장



제41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냈다.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간호정신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국제간호협회(ICN)의 초청을 받아 6월 29일 학술대회에서 '정책: 헌신, 소통과 연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일상 속에서 절실한 마음과 사랑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간호사이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간호사들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간호사들이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이는 간호사를 위한 것이기에 앞서 인류와 사회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넬싱 나우 캠페인'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간호전문직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 간호사는 보건의료현장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로서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해야 한다.

간호사는 환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실제적인 고통을 누구보다 먼저 듣고 공감할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환자의 가까이에서, 환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둘째, 간호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소통과 연대이다.

간호사가 직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근무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간호사가 보건의료정책 테이블에 적극 참여해 리더십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체계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정책당국자를 설득해서 환자를 제대로 돌볼 간호시스템을 이뤄내었던 것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단체가 정부나 보건의료분야 관련 단체들 나아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쟁보다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차근차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들의 단합과 국제적 연대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과 정신, 윤리와 원칙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소목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모임을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두 간호사의 숭고한 헌신과 사랑을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따르게 될 때, 간호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2020년은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자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인 만큼 간호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호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세계 간호사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 '넬싱 나우 캠페인' 통해 간호사 지지

### 간호사 역할 강화해야 글로벌 건강 향상

나이젤 크리스프 경 (Lord Nigel Crisp)  
넬싱 나우 공동위원장



Nursing Now 공동위원장이며, 넬싱 나우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영국 상원의원이며, 글로벌 건강에 관한 의원 모임 공동의장이다. 미국의학술원 외국인 회원이다. 영국 보건의료의 개혁을 이끌었다.

“2020년은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이다. 넬싱 나우는 국제간호협회(ICN)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간호사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

넬싱 나우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나이젤 크리스프 공동위원장은 셰라 톨로우(Sheila Tlou) 공동위원장과 함께 6월 28일 ICN 학술대회 메인 세션 강연자로 나서 넬싱 나우 캠페인에 대해 소개하고, 간호사들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넬싱 나우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인 2020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ICN과 WHO가 함께 추진하며, 버데트간호재단(Burdett Trust for Nursing)에서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ICN으로 이관돼 계속 이어 나가게 된다. 현재 세계 89개국에서 동참하고 있다.

넬싱 나우 캠페인은 간호사의 역할 강화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할 수 없으며,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넬싱 나우 캠페인은 간호사의 지위(위상)와 역할을 강화해 글로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첫째, 간호의 영향력을 높이고 간호사의 리더십을 개발한다. 둘째, 간호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간호가 여성의 지위와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넷째, 간호가 국가의 모든 정책에 포함될 때의 효과를 보여준다.

나이젤 크리스프 공동위원장은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인 내년에는 세계간호현황보고서(SoWN) 발표, 나이팅게일 2020 컨퍼런스 등 빅 이슈들이 예정돼 있다”면서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ICN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간호현황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간호사 여러분들이 기여해야 한다”면서 “각국의 보건부에서 정확한 통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이젤 크리스프 공동위원장은 “차세대 간호사들이 인류의 건강 옹호자, 실무자, 리더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젊은 간호사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리더십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넬싱 나우에서는 '나이팅게일 챌린지(Nightingale Challenge)' 캠페인을 함께 펼치고 있다. 35세 이하의 간호사 최소 2만명에게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 간호사 배치수준이 환자안전 결정

### 간호사 당 환자 수 많을수록 사망률 등 높아져

린다 에이큰 (Linda H. Aiken)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교수



간호사 배치수준과 교육수준, 근무환경이 환자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근거를 제시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린다 에이큰 교수가 6월 30일 ICN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및 사회학과 교수이며, 건강결과와 정책연구센터장이다. 이에 앞서 린다 에이큰 교수는 6월 12일 대한간호협회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특별강연을 한 바 있다. 린다 에이큰 교수는 간호사 배치수준이 환자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세계 30개국에서 동일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든 간호사 배치수준이 높을 때 환자결과가 좋아진다는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ICN 학술대회에서 린다 에이큰 교수는 “간호사 당 환자 수가 줄어들었을 때의 효과가 연구로 입증됐다”면서 “환자 사망률, 재입원률, 재원기간, 중환자실 입원, 감염관련 문제, 욕창 및 낙상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 만족도 및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높아지고, 간호사의 소진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린다 에이큰 교수는 “안전한 간호사 배치(Safe Staffing)는 환자와 간호사의 결과(Outcome)를 향상시킨다”면서 “재입원, 재원기간, 합병증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호사 배치기준을 향상시키면 결국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 SDGs 달성 위해 간호사 확보에 투자해야

### 세계간호현황보고서 작성 추진

짐 캠퐀 (Jim Campbell)  
WHO 보건의료인력국장



세계보건기구(WHO)의 짐 캠퐀 보건의료인력국장이 국제간호협회(ICN) 대표자회의 정책포럼 및 7월 1일 학술대회 기조강연에 참석해 강연했다.

짐 캠퐀 국장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셋째 목표인 건강과 웰빙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는 여성인력이 많은 분야인만큼 성희롱 예방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고 인력확충에 힘써야 한다”면서 “간호사에게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짐 캠퐀 국장은 “간호인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WHO에서는 세계간호현황보고서(SoWN)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국에서 보다 나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간호에 투자해야 한다는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와 근거를 제공하는 데 보고서가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숙련된 간호사 보유전략 세워야

### 간호사 이직하면 병원 비용손실 커

제임스 뷰켄 (James Buchan)  
영국 퀸 마가렛대 교수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임스 뷰켄 영국 퀸 마가렛대 교수는 7월 1일 ICN 학술대회 메인세션에서 연자로 나서 ‘간호사 유지(보유)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보건의료인력 특히 간호인력에 대한 정책전문가이다.

이에 앞서 린다 에이큰 교수와 함께 6월 12일 대한간호협회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특별강연을 한 바 있다.

제임스 뷰켄 교수는 “간호사가 이직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설명하고,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지(보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한 명이 이직하면 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직률이 높은 병원엔 간호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결과가 나빠지며, 남아 있는 간호사들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간호사 인력 정책은 일관성 있게 접근하고 조정해야 한다. 특히 각국 간호협회에서 정책입안자들에게 근거에 기반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간호 리더십을 통해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참시켜야 한다.